

세종정책연구 2019-10

미중 갈등의 장기화 노정 가능성과 그 배경

이성현 지음



세종연구소

저자 약력

이성현 (李成賢)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연구 분야】

미중관계, 북중관계, 동아시아지정학

【주요 저서】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주요 논문】

“Historical Perspective on China’s ‘Tipping Point’ with North Korea,” *Asian Perspective*, 42 (2018), With Donggil Kim.

“Why Did We Get China Wrong? Reconsidering the Popular Narrative: China will abandon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016, Vol. 25, no.1.

“Chinese Scholarly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Sino-South Korean Relation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21, Number 1, Spring 2016. With Qian Yong.

“Where Is Washington? The Missing Mediator between Seoul and Tokyo.” *The Washington Quarterly*, 2019, Vol 42, 1.

미중 갈등의 장기화 노정 가능성과 그 배경

2020년 2월 3일 발행

지 음 | 이 성 현

발행인 | 백 학 순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전화 | (031) 750-7615

팩스 | (031) 754-0100

홈페이지 | www.sejong.org

등 록 | 2001년 1월 19일 제1-26호

IS B N | 978-89-7429-417-5

※ 본 자료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약문 5

I. 들어가며 7

II. 기존 시각의 검토 11

1. 경제적 이론의 한계성
2. 자유주의 비판 및 이성주의 이론
3. 세력전이 이론
4. 구조-행위자

III.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이를 ‘용인’한 미국의 대응 16

1. ‘가짜 친구 관계’(假朋友)인 미중관계

IV. ‘차이나 드림’을 꾸는 중국의 시대정신 22

1. ‘중국제조 2025’
2. 첨단산업을 통한 ‘군사굴기’
3.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核心利益)
4. ‘사회주의 강국’의 이상향
5. 시진핑의 ‘난세(亂世)’의식
6. 시진핑의 ‘변증법’적 사관으로 본 미중 무역전쟁

V.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전 노정 가능성 31

1. 미중 갈등과 한국

참고문헌 40

요 약 문

기존 미중 관계의 특징을 설명하는 한 보편적인 수사(修辭)는 미중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도 결국은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는 식의 자유주의적 담론이었다. 즉, 미중이 때때로 갈등을 겪더라도 상호보완적인 경제이익 등 교집합이 많은 미중관계의 특성상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미중관계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논리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글은 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전처럼' 협조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간의 패권경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살펴보는 탐색적(exploratory)추론의 과정을 담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이 타협을 보기 보다는 장기간의 패권경쟁 양상을 보일 것이며, 일시적인 '봉합'을 보일 수 있는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악화'의 노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的偉大復興)으로 요약되는 '중국몽'을 완성하는 시기를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으로 설정했으니 미중 갈등은 앞으로 30년, 즉 한 세대의 시기가 될 수 있다.

결국 미중갈등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패권국과 부상하는 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만들어내는 보다 구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로는 협력을 촉진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갈등적 경쟁구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 장기적인 고통을 초래하더라도 미국에 '단기적 고통'을 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뒤집으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양패구상식 전술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성격에 대해 한 발 늦은 인식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전쟁'도 아니고 '무역 분쟁'도 아니라 미

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한발 늦은’ 인식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어떠한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 선택에 있어 더 큰 도전과 고민을 의미한다.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전략구상이 부재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미·중 사이의 기계적인 중립이나, ‘미·중 둘 다 중요하니 어느 쪽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영리한 변명’(clever excuse) 뒤에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변국 줄 세우기는 강대국들의 오랜 역사적 패권 행동 양식이다.

I. 들어가며

이 글은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이 타협을 보기 보다는 장기간의 패권경쟁 양상을 보일 것이며, 일시적인 ‘봉합’을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악화’의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的偉大復興)으로 요약되는 ‘중국몽’을 완성하는 시기를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으로 설정했으니 미중 갈등은 앞으로 30년, 즉 한 세대의 시기가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초기 중국이 조기에 항복¹⁾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되는 이유는 객관적인 국력 지표에서 중국이 밀리면서도 미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심지어는 공세적 대응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히려 중국은 실력과 국력에서 밀리면서도 “끝까지 간다”(奉陪到底)²⁾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를 취한다.³⁾ 미중 무역전쟁이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이라 하더라도 수세에 몰린 쪽이 일단 현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보를 하거나, 혹은 미래에 기회를 다시 포착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행위는 얼핏 보기에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다투면 둘 다 손해’인 미중 무역전쟁이 이 글을

¹⁾ ‘항복’은 이 글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요구들을 중국이 받아들이면서 무역전쟁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이는 종종 양국 정부의 관련 문서에 대한 합의 서명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²⁾ 人民日報. “坚决反制 奉陪到底.” (완강반격 끝까지간다) 2019.08.16.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8/16/c_1124882697.htm

³⁾ Robert O. Keohane, “Realism, Neorealism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Chapter 1, p.11

쓰는 시점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심지어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2019년 8월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로 지정했다.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친구’(friend)로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8월 처음으로 그를 ‘적’(enemy)으로 칭했다.⁴⁾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중국과 단절’까지 위협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비상경제권법이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⁵⁾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는 미중 관계가 이제 ‘자유 낙하’(free fall)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⁶⁾ 이쯤 되면 미중 양국이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는 평가⁷⁾도 나오고 있다.

기존 미중 관계의 특징을 설명하는 한 보편적인 수사(修辭)는 미중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도 결국은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는 식의 자유주의적 담론이었다. 즉, 미중이 때때로 갈등을 겪더라도 상호보완적인 경제이익 등 교집합이 많은 미중관계의 특성상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미중관계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논리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핵무기를

4) “‘충력전’으로 충돌한 미·중… 9월 무역협상도 불투명.” 연합뉴스. 2019.08.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4047100083?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beijing&site=major_news01_related.

5) “‘中과 단절’ 위협한 트럼프” 절대적 권한, 비상경제권법 있다.” 연합뉴스. 2019.08.25.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02100072?section=politics/diplomacy&site=major_news01.

6) Ana Swanson, “As Trump Escalates Trade War, U.S. and China Move Further Apart With No End in Sight,” New York Times, 1 September 2019, <https://www.nytimes.com/2019/09/01/world/asia/trump-trade-war-china.html>.

7)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갈등.” 경향신문. 2019.08.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52052005&code=990101. 2019년 8월23일 중국은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5% 혹은 10% 관세를 9월과 12월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보류했던 미국산 자동차에 25%, 자동차 부품에 5%의 관세를 12월부터 물리기로 했다. 그러자 미국도 가만있지 않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미국은 10월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부과될 나머지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가지고 있으며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이 서로 싸우면, 서로 자멸할 것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는 미소 냉전시대의 핵전략으로 미소 간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MAD)’ 전략을 유지하여 미소 간 핵전쟁을 예방한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글로벌 문제의 대두는 결국 미중 양국을 서로 협력하게끔 만들 것이라는 미중 공동 글로벌 거버넌스의 당위론도 제시되었다. 문제는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글은 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전처럼’ 협조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간의 패권경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살펴보는 탐색적(exploratory) 추론의 과정을 담고 있다. 첫째, 미중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현실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해 탐구한다. 둘째, 미중무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행위자-구조의 이론에 입각해 탐구한다. 특히 수세에 몰린 중국의 입장에서 왜 전체적, 객관적으로 국력이 미국보다 하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탐구하는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이란 행위자와 ‘중국공산당체제’라는 정치적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21세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⁸⁾(즉, 미중 관계)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공산당 중국정치체제 구조 속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현 패권국인 미국에게 항복 혹은 양보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권 정당성 문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지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미중관계의 사이에 놓인 한국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지 탐구한다.

이 글이 갖는 제한성도 명확하다. 이 글은 미중 갈등에 관해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보려는 의욕은 자제한다. 대신 미중 무역전쟁이 ① 생각

⁸⁾ 外交部网站, “2019年8月21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2019.08.21.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690592.shtml.

보다 심각하고 ② 그 파장이 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 초기에 이를 '통상 분쟁' 쪽으로 예측한 측면이 있고, 또 금방 끝날 것이라는 과소평가가 다수 있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역추적해보는 저자의 반추의 성격도 겹하고 있다. 글의 분량 제한 때문에 상호의존이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지 못했고, 미중 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는 국내 문제들을 깊이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미중관계에 관해 이미 나온 매우 방대한 이론적 검토에 들어가기 보다는, 대표적 몇몇 이론을 간략히 소개했다. 정책지향적 현상 분석 중심과 그 배경, 그리고 함의를 다루었다.

II. 기존 시각의 검토

1. 경제적 이론의 한계성

“미중 무역 전쟁은 싸우면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타협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낙관론이 최근 들어 재고(再考)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을 “싸우면 손해인 무역 전쟁을 미중은 왜 멈추지 않는가?”라고 바꾸어 던져 볼 수 있겠다. 무역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이 지키려고 하는 것, 혹은 중국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논리’로 통쾌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요인들 (non-economic factors)’의 영향력이 제법 상당한 수준이어서 경제 문제여야 할 무역분쟁의 본질을 흔들리게 할 정도다. 조금 더 사고를 개연성 차원에서 넓혀 보자면, 어쩌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무역’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무역전쟁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미·중 구조적 갈등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2. 자유주의 비판 및 이성주의 이론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경쟁과 갈등구조의 심화는 현실론자들의 세계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실론자에 반하는 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국가 간의 상호의존이 국가 간의 충돌 혹은 전쟁을 억제한다. 본질적으로 국가는 개방된 경제적 교류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중단시키거나 위협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상호의존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내의 이익단체들 또한 국가가 자의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억제한다. 현실주의자들은 반대로 상호의존이 국가 간의 불평등, 불안정, 그리고 약점 등을 부

각시키면서 더 쉽게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 데일 코플랜드(Dale Copeland)는 국가들간의 충돌과 조화를 결정짓는 요인은 상호 의존 그 자체가 아니라 상호의존에 대한 기대라고 주장한다. 그는 1930년대 미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인 기대가 낮아지면서 일본이 미국에 대한 전쟁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리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미중관계에도 적용된다. 저자는 중국이 얼마나 외교적 모험을 할 것인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유익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중국의 기대와 확신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즉, 저자는 아태지역에서 미중관계의 전망은 호의적인 정치적 요소(미국 내 여론과 의회의 압력)와는 별개로 미중이 안정적인이고 일관적인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결론을 내린다.¹⁰⁾

3. 세력전이 이론

세력전이 이론에 의하면 기존 패권국에 의해 유지되는 국제 정치 질서 안에서 부상하는 국가가 불만족을 느낄 경우 양국의 힘의 격차가 균등해지는 시점에서 양국 간의 갈등, 또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부상국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패권국이 부상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세력전이 상황에서 양자가 서로의 핵심이익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또는 침해하는지가 평화적 세력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건적인 요소이다.¹¹⁾ 더 나아가 세력전이 이론은 국제 정치 질서 안의 다른 국가에게도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현

⁹⁾ 홍소일. “국제관계 이론과 아시아태평양.” 전략연구, 2004. p. 144.

¹⁰⁾ 상동. p. 166. 더불어 미중갈등에서 ‘무역’이라는 요소가 미중이익공동체를 형성하여 지금까지 미중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토의도 이 글에서 나중에 진행된다.

¹¹⁾ 이재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중관계: 정치경제 구조의 지속과 변화 가능성.” 전략연구, 2014, 211-229.

재까지 미중 무역전쟁을 설명하려는 주요 담론은 ‘패권 경쟁’이다. 즉, 현재 무역전쟁은 미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 설명은 현 미중관계가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식의 갈등, 즉 구조적 경쟁 관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현 상황을 설명해 주는 프레임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4. 구조-행위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 과학 이론은 ‘행위자-구조’ 문제에 대한 암묵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¹²⁾ 사회에 대한 행위자의 역할과 구조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¹³⁾ 우선 구조와 행위자 중, 구조가 행위자의 행동을 결정케하는 선행 요소라는 시각이 있다. 구조가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구성한다는 인식이다. 이런 면에서 이마뉴엘 월러스틴은 “구조가 국가의 정체성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까지 주장했다.¹⁴⁾ 그렇다고 해서 행위자를 구조의 하수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 반대로 구조는 행위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지도자는 당연히 ‘사회주의 지도자’가 되겠지만,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 구조 자체는 행위자가 만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각각 건국 이후 얼마나 다른 국가 구조를 만들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¹⁵⁾ 사회 구조는 이렇게 인간 행동의 의도적이고 의

¹²⁾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Summer, 1987), pp. 335-370. p. 337.

¹³⁾ Roxanne Lynn Doty. “Aporia: A Critical Exploration of the Agent-Structure Problematiqu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97. Volume: 3 issue: 3, page(s): 365-392. p. 365.

¹⁴⁾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3판, 2005), p. 266.

도하지 않은 결과의 귀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 사회의 구조는 규범적이다. 문제는 어떻게 규범적 구조가 행위자를 만들고 행위자가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변용할 수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구조는 행위자의 이용 가능한 선택과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자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대 행위자’ 논쟁은 개인이 자유인으로 행동하는지 또는 사회 구조에 의해 지시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결정하는 지 여부로 귀결되며, 총체적으로는 사회화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¹⁶⁾

본 글은 이 논리에 대한 확장의 연장선에서 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탐색해 본다. 다시 말해, 본 글은 같은 논의가 ‘행위자’와 ‘구조’적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며 이는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왜 장기전이 될 것인지에 주장에 더욱 힘을 보태 준다. 미중 무역전쟁이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이라 하더라도 수세에 몰린 쪽이, 혹은 둘 중에 힘이 약한 쪽이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중국이 왜 ‘항복’을 하지 않는가는 설명되지 않는다. 사실 미중 무역전쟁 초기에는 중국이 항복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행위자와 구조’론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 미중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미중의 입장과 인식이 근본적으로 하나일 수 없다¹⁷⁾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보이는 외교 행태가 행위자와 구조의 역학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산물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의 틀을 제시한다. 즉, 미중 관계 역학이 이미 결정된 실재로서의 국가간 관계역학이라고 보기

¹⁵⁾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Summer, 1987), pp. 335-370. p. 337.

¹⁶⁾ Barker, Chris (2005).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ISBN 978-0-7619-4156-9, p. 448.

¹⁷⁾ 관련 아이디어는 다음에서 얻었음. 하영선·남궁곤 편저,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2007). p. 201.

보다는, 무역전쟁을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의 일부분으로 보고 그 과정을 본고에서 ‘행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다룬다. 정치행위는 둘 이상의 개인이 함께 모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행위자 역시 복수이겠지만 논의상 중국의 최고정치결정자인 시진핑만을 다룬다. 이 글은 행위자와 구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결정적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대신 중국의 정치행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행위자와 구조가 어떻게 서로간의 역학관계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행위를 도출하게 되는 지가 본고의 관심사인 미중 경쟁에도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둔다. 미중 무역전쟁 현 상황을 가져 온 것에 대한 책임이 중국의 공산당 정치체제라는 구조적 특징인가 아니면 시진핑이라는 특정 행위자가 기여한 측면이 큰가, 라는 질문 역시 흥미롭다. 그리고 우리의 논의 진행과정에서 이를 다룰 것이다. 하지만 본 글의 논의의 초점은 행위자와 구조가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태도를 총합적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하는가에 맞춰져 있다.

III.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이를 ‘용인’한 미국의 대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18년 10월 허드슨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미국 안에 영향력을 심어 중국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프로파간다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¹⁸⁾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한 마디로 중국이 미국 체제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려 40분간의 연설을 오직 ‘중국’이라는 한 국가에 할애하여 조목조목 여러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런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한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당시 제대로 인지되지 못했다. 이는 미중 관계의 큰 틀을 안정적으로 봐왔던 한국의 미중 강대국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독특한 사향은 아닐 것이다. 미국국가전략보고서(NSS)¹⁹⁾가 처음 나왔을 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것을 ‘과대평가’(overestimate)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는 미국이 가장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는 러시아이지 중국은 아니다, 중국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이 나왔을 때도 “중간선거용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혹자는 ‘중국을 겨냥했으면 발표한 시각이 중국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밤 11시(중국 현지 시각)에 발표했겠는가?’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²⁰⁾ 이러한 평가는

¹⁸⁾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The Hudson Institute. 2018.10.04. <https://www.hudson.org/events/1610-vice-president-mike-pence-s-remarks-on-the-administration-s-policy-towards-china102018>.

¹⁹⁾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²⁰⁾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을 행한 시간은 2018년 10월 4일 오전 11시였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보통 세미나를 진행하는 시각이 이 시간이다. 12시부터 시작하는 오찬 모임도 주류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시각차는 12시간이고 베이징 시간은 당연히 한 밤중이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한 밤중 시간을 골랐다’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라는 것이 후에 밝혀졌다. 펜스 연설의 준비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간 광범위한 조율이 있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 연설을 가리켜 심지어 미·중 관계의 ‘변곡점(inflection point)’이라고 보기도 한다.²¹⁾ 즉, 미·중 관계는 펜스 연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듯이 펜스 부통령은 1년 이 지난 2019년 10월 24일 워싱턴 소재 월슨센터가 주관한 행사 연설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제적 라이벌’(a strategic and economic rival)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미중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a fundamental restructuring)이라고 강조했다.²²⁾

미국에서는 공화·민주당이란 정파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반중정서가 전반적으로 고조·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갈수록 미국사회를 반영하는 나름의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미국 내 중국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자학원’ 폐쇄 움직임, 중국 기업인들의 미국 첨단기업 투자나 인수·합병 및 산·학 협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최근 화웨이 부회장 체포 등 일련의 조치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전반적인 국력 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여 년 전만해도 미국의 1/8 정도에 불과했던 중국의 경제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3/4 수준까지 급속도로 쫓아왔다. 이 상태의 추세로 가면 오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미국국가 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는 보고 있다.

²¹⁾ Gerald. F. Seib, “Pence Uploaded on China; Here’s Why That’s Important,” The Wall Street Journal, 2018.10.08. <https://www.wsj.com/articles/the-deeper-meaning-of-pences-china-broadside-1539010010>.

²²⁾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at the Frederic V. Malek Memorial Lecture.”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vice-president-pence-frederic-v-malek-memorial-lecture/>.

경제뿐만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중국 경제 모습은 더욱 확연하다. 2018년 2월 초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²³⁾에서 중국 관련 부분의 첫 문단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군은 2050년까지 ‘일류 군대로 완전히 탈바꿈 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방향에 맞춰 핵전력에 필요한 군 병력의 숫자, 역량, 그리고 핵전력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큰 경계심을 드러냈다. 요컨대, 중국이 경제굴기 뿐만 아니라 군사굴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해 미국이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유엔안보리상 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중국의 핵정책에 외부로 들어가지 않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중 무역마찰은 경제적 측면의 문제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국간 마찰이 경제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설사 미·중 간 무역전쟁에 대한 잠정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의 2018년 연설이 G20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한 달 앞선 시점에 나온 것이란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백악관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긴장을 낮추는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라이언 하스(Ryan Hass)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말은 특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²⁴⁾ 그는 201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국장이었다.

²³⁾ “Nucler Posture Review.” Department of Defense. Feburary 2018.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77/-1/-1/1/EXECUTIVE-SUMMARY.PDF>.

²⁴⁾ “The U.S. is stopping trade talks with China,” Voice of America, 2018.10.25. <https://www.vox.com/2018/10/25/18022518/usa-china-trade-war-trump-xi-talks-g20>.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중장기적인 견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각종 국가전략보고서와 법안을 통해 문서화, 공식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저명한 중국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여 2019년 2월에 발간된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의 미중관계 보고서의 제목은 '항로 변경' (Course Correction)이다. 외교적 인사로 차분히 쓰여졌지만 "미중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두 나라의 경제를 '분리' (decouple)하려는 노력은 큰 주의를 하면서 진행되어야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²⁵⁾ 주목할 것은 '분리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분리를 진행하되 조심해야한다'는 것이다. 2019년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0년이 되는 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들의 면면이 수전 셔크 (Susan Shirk)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 소장), 오빌 셸 (Orville Schell)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 등 대부분 '온건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제언은 뜻밖이다. 미중 관계의 현 상황에 대해 2019년 6월 커트 캠펠 (Kurt Campbell)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워싱턴에 있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요즘 '중국 관여 정책의 종말' (the end of engagement with China)과 그 후 무슨 일이 발생할 지 ("what's next?")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²⁶⁾고 했다. 마이클 모렐 (Michael Morell)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acting director)은 "앞으로 다가오는 25년 혹은 50년 동안 세계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

²⁵⁾ "Given the close economic ties between the U.S. and China, efforts to decouple our two deeply intertwined economies should proceed with great caution." Orville Schell and Susan L. Shirk. "Course Correction: Toward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China Policy." Asia Society. February 2019.

²⁶⁾ "Almost every group in Washington these days is contemplating 'the end of engagement' and what's next in the U.S.-China relations." Words by Kurt Campbell in his dialogue with Ashley Tellis. In "The Tea Leaves Podcast." June 17, 2019. <https://podcasts.apple.com/us/podcast/ashley-tellis/id1355207045?i=1000441738040>.

한 관계(relationship)는 바로 미중 관계다”라고 했다.²⁷⁾ 앞서 언급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담당국장 라이언 하스(Ryan Hass)는 그러한“미중 관계에 대해 정말로 걱정 한다 (have real concerns)”며 갈등 심화 과정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²⁸⁾

1. ‘가짜 친구 관계’(假朋友)인 미중관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 칭화대학의 엔슈에통(閻學通) 교수는 미중관계를 거론하며 미국은 지금까지 ‘친구’인 척했지, 사실상 ‘가짜 친구’(假朋友)였다고 주장했다.²⁹⁾ 미중 수교 후 지난 40년 동안 미중 관계는 서로 친구인척 하면서 서로를 대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을 자신이 만든 국제질서 안으로 견인하려는 노력을 지난 40여 년간 펼쳐왔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접근법을 ‘색깔 혁명’(顏色革命)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봤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과 교류를 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구 소련 와해 후 중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 국가에서도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더욱 더 경각심을 갖게 된다. 중국의 국영 언론은 미국이 중국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했다. 서방 세력으로부터 중국과 중국인민을 지키

27) 해당 발언은 다음의 발언 중에 포함되어 있다. “The future of the world is in East Asia. There’s no doubt about it.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for what the world is going to look like in the next 25 or 50 years is th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So, we’d better get that right.” In “The Tea Leaves Podcast.” April 23, 2019.

28) “I have real concerns about the U.S.-China relationship.” Sinica Podcast. June 21, 2019.

29) Yan Xuetong, “The Instability of China-US Relation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 2010, pp. 263-292.

는 것은 자연스레 중국공산당 집권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군사적으로 월등한 미국은 한국전쟁이후 중국을 한 번도 군사적으로 침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국이 제시하는 ‘미국의 중국 적대시’ 논리를 늘려왔다. 심지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천안문 사태로 국제적 입지가 좁아졌던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MFN) 자격을 주었고, 2001년에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지지해 주었다.³⁰⁾

2011년 ‘중국의 부상’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 후에 ‘Asia Rebalancing’으로 재명명)를 실시하기 시작한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중국의 부상을 조정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실제로 중국을 견제하거나 적대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는 지구온난화 등 복잡해진 세계적 문제를 중국과 함께 해결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중국이 나눠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중국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을 공동 집행하려 하였다. 오바마의 비판자들은 오바마가 중국에 대해 제한적 군사적 행동이나 무력시위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가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트럼프가 당선된 후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트럼프의 ‘마라라고’ 별장 회동을 통해 무역문제를 포함하는 양국 문제를 해결하는 로드맵에 동의한 듯 했으나 얼마 후 양국 사이에 ‘관세 분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결국 무역전쟁이 터져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³⁰⁾ WTO 가입여부는 “WTO의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협상과 이들이 참여한 “가입 작업반”의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이 된다. 주로 가입희망국과 회원국들간의 합의를 통해 가입여부가 결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회원국들의 투표로 가입이 결정이 된다. 2001년 당시 중국의 경우에는 미중간의 양자협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인교,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1-02, 2001.

IV. ‘차이나 드림’을 꾸는 중국의 시대정신

1. ‘중국제조 2025’

앞 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중무역전쟁을 지속하는 이유를 살펴 보았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중무역전쟁의 시발점에는 소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 2025)’라는 구호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을 하자는 슬로건은 세계 각국에서 제시하고 있다. 얼핏보면 ‘중국제조 2025’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는 중국의 학자들이 미국의 중국산업 견제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근거다. 한국도 경제도약 과정에서 ‘증산-수출-건설’ 혹은 ‘세계화’ 등의 슬로건을 사용해서 산업화를 장려했다. 그 결과 삼성이나 LG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을 가지게 된 경험상 중국제조 2025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이것이 그리 간단한 구호가 아니라 실로 야심 찬 국가 프로젝트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은 시진핑 정부가 2015년 ‘정부공작보고’ 《政府工作報告》에서 처음 발표하였다. ‘중국제조 2025’의 서문의 첫 마디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기반을 건설하는 것은 중국의 종합 국력을 높이고”(我國提升綜合國力)로 시작한다.³¹⁾ 또한 ‘중국제조 2025’는 “국가 안보를 지키며, 세계의 강대국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保障國家安全, 建設世界強國的必由之路)고 까지 전한다. 즉, 이는 중국의 단순한 산업발전계획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이라는 속내를 드러내는 한 면이다. 심지어 이를 강대국이 되는 ‘유일한 방법’(必由之路)이라고 명명했다.

³¹⁾ 國務院, “國務院發布〈中國製造2025〉全文” 2015.05.08.

중국의 구상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은 더욱 더 의미심장하다. 우선 2025년까지는 한국, 프랑스를 따라잡고, 2035년까지는 일본, 독일을 추월하고 2049년에는 마침내 미국을 제치고 주요 산업에서 세계 제조업 1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²⁾ 2049년은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비록 미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초월하는 것이다. 2049년은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소위 ‘신 중국(新中國)’을 건설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시진핑이 19차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사회주의 선진국’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³³⁾ 그리고 이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이고, 시진핑 정부의 야심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이룩한다는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첨단산업을 통한 ‘군사굴기’

세부적인 내용에서 ‘중국제조 2025’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IT, 항공산업, 신소재,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현재 미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관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다. 여기에서 중국이 경쟁하고 심지어 따라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중국도 갖겠다’는 경쟁 심리는 마오쩌둥이 핵무기를 개발한 원초적 동기 중 하나였고³⁴⁾, 2012년 중국이 구 소련의 중고 항공모함을 사들여 전면 개보수한 다음 재취역 및 실전배치시킴으로써 본격적인 항모 보유국 시대를 연

³²⁾ 상동.

³³⁾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은 엄밀히 2049년이지만 편의상 숫자가 깔끔하게 끝나는 ‘2050’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중국 문건에는 2049년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³⁴⁾ 저자의 인터뷰. 2019년 7월.

것도 미국과의 미래 패권 경쟁을 준비하는 작업의 서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경망'이라는 5G(5세대) 통신 산업 경쟁도 마찬가지다. 첨단 기술 분야인 드론,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 등은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군사 기술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개롭게도 최근 중국은 '군-민간 협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3.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核心利益)

자신감 넘치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의 중심에는 중국의 '핵심이익'이 있다. 그 저변에는 '경제발전'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핵심이익'이 되어버린 중국의 '정치구조'가 있다. 그리고 중국최고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핵심이익을 "국가의 핵심이익에 있어서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다. 어떠한 국가도 우리가 핵심이익 사항을 교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2015.05.25.)고 경고했고 그 말을 그 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중국 공산당 문건에 의하면 '핵심이익'은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핵심이익엔 '경제발전(经济发展)'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 논리에 의해 중국은 결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도 마찬가지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현 지도부에서 '중국몽'의 상징이다. 일대일로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레거시'(legacy) 프로젝트이고 중국공산당의 당장(黨章·당헌)에도 삽입되었다. 헌법 위에 있는 당장은 공산당의 지도 지침이다. 또한 2013년부터 추진한 일대일로를 이제 와서 '미국 압력'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면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에도 상처가 난다. 또한 미국의 요구 가운데는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중국공산당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혈관'과도 같은 존재이다. 중국

의 양보는 지난해 보인다.

4. '사회주의 강국'의 이상향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정치지도부는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미중무역전쟁에 임하고 있다. 이는 일반 예측과 달리 중국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무역전쟁 초기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기 항복을 예상했다. 반대로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을 여전히 기울고 있는 패권국으로 보고, 현재를 미국 추월의 '전략적 기회의 시기'(戰略機遇期)로 본다. 또한 '시진핑'이라는 '행위자'는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이상향을 제시한다. 지금 세계가 '100년만의 대변혁기(百年未有之大變局)'에 있다는 시진핑의 말엔 '국운 상승' 기회를 확실히 중국 쪽으로 추동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무역전쟁에서 단기적으로 밀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 믿는다. 중국의 이런 '집단 사고'(collective consciousness)는 2019년 3월 양회(兩會)기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개최한 내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날로 더욱 세계무대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中國日益走近世界舞台的中央)³⁵⁾는 발언에도 투영되어 있다. 무역전쟁 한 가운데에서 자칫 엉뚱해보이기까지 한 중국이 보이는 자신감이다.

5. 시진핑의 '난세(亂世)'의식

특히 시진핑의 세계관에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시진핑이 보는 세계는 '평화롭지 않은 세계'³⁶⁾로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시진핑의 세

³⁵⁾ “王毅：中國正在日益走近世界舞台的中央。”人民政協網。2019.03.08. <http://www.rmzxb.com.cn/c/2019-03-08/2304277.shtml>.

³⁶⁾ 시진핑의 '평화롭지 않은 天下'에 대한 시대적 인식은 그의 연설에서도 종종 드러난다. 그는 2013년 4월 보아오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천하가 여전히 평화롭지 않다”(天下仍

계관을 반영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공산당은 ‘싸우면 이기는(打勝仗) 군대’, 소위 ‘강군꿈’ (強軍夢)을 강조하면서 시진핑이 주창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앞서고 있다.³⁷⁾ ‘사회주의 강국’을 향한 시진핑의 이상향은 중국의 대내외적인 도전과제 (미중갈등의 장기화, 중국 경제성장률 저하, 홍콩 시위 등)들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진핑의 개인적인 권력과 중국공산당의 집단적인 권력의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 시진핑은 자신의 칭호에 ‘핵심’ 지위를 붙여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하였고 ‘통치 정당성’을 잃지 않기 위해 중국 사회를 더욱 ‘이념화’시키며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도 향상되고 있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소개되는 동시에 ‘당의 영도적 지위’도 추가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시진핑의 개인권력 강화와 공산당의 집단권력 강화는 둘의 관계가 공생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한 지도자 시진핑을 ‘핵심’으로 명문화한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의 관철을 명분으로 주변국과 근년에 잦은 갈등을 일으켰다 (일본과 영토 분쟁, 한국과 사드 파동, 인도와 국경 분쟁, 미국과 남중국해 분쟁 등).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측 관전법은 확연히 다르다.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패권 추구’라 보지 않고 중국이 ‘대국’으로 굴기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성장통’으로 보는 듯하다. 이에 각종 갈등과 위기를 ‘성장통’으로 여기며 극복하자는 논리가

很不太平)라고 진단했고, 2015년 9월에 열린 열병식 (박근혜 前 대통령이 참석함)에서도 “세계가 여전히 평화롭지 않다” (世界仍很不太平)라고 했다. 또한 2017년 7월30일 건군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도 다시 “천하가 평화롭지 않다” (天下并不太平)라는 발언을 반복했다.

³⁷⁾ 中共中央紀律檢查委員會, “強軍之路 (下) ——《將改革進行到底》第八集”, (2017.7.25.) at <http://v.ccdi.gov.cn/2017/07/24/VIDEiPGLXN0a8yJX3wQl0QwY170724.shtml>.

재탄생되며 ‘중국의 시대정신’을 대변하게 한다. 이는 또한 시진핑의 ‘변증법’적 세계관과 연관이 있다.

6. 시진핑의 ‘변증법’적 사관으로 본 미중 무역전쟁

2018년 말 미중 무역전쟁이 ‘90일 휴전’으로 들어간 후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멩완저우(孟晚舟) 부회장이 미국 정부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전격 체포돼 큰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진핑은 12월 13일 공산당정치국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변증법’을 언급했다.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증법의 각도에서 국제환경의 변화를 보고, 의기의식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간을 계속해서 잘 이용하고, ‘전략적 정력(战略定力)’을 유지해야 한다.”³⁸⁾ 시진핑의 발언과 관련하여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타이틀을 붙였다: “오늘 정치국회의, 변증법적으로 국제환경 볼 것 강조”.(今天政治局会议, 强调要辩证看待国际环境).³⁹⁾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국제환경은 미중 무역전쟁이다. 그 국제환경을 시진핑은 ‘변증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시진핑에 있어 변증법이 그가 세계를 바라보는 사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간파한 사람은 호주 총리를 역임한 ‘중국통’ 케빈 러드(Kevin Rudd)다. 그는 변증법이 시진핑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본다.

시진핑의 ‘변증법’에 대한 관심은 깊다. ‘변증법’은 그의 집권 초기부터 중요 발언에서부터 등장했다. 2012년 11월 제18차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해 12월 31

³⁸⁾ 관련부분 원문은 다음과 같다. “要辩证看待国际环境和国内条件的变化, 增强忧患意识, 继续抓住并用好我国发展的重要战略机遇期, 坚定信心, 把握主动, 坚定不移办好自己的事, 要保持战略定力.” 인민일보. 2018.12.14. 1면.

³⁹⁾ 金融界. “中央政治局会议: 要辩证看待国际环境和国内条件变化,” 2018.12.13. <https://finance.jrj.com.cn/2018/12/13164726735477.shtml>.

일 공산당 '정치국 집단학습(政治局集体學習)'에서 "덩샤오핑 이래의 점진적 개혁 방식과 종합적 상위 비전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개혁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1월 제20차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그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더욱 잘 견지하고 더욱 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제19차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시진핑은 유달리 '새로운(新)'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이 역시 이념 및 정책노선의 지속과 변용을 강조한 변증법적 수사다. 시진핑의 '변증법'에 대한 애착은 2018년 5월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대회'에서 또다시 나왔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중국인민이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한 것이 백번 옳았다!" (歷史和人民選擇馬克思主義是完全正確的)⁴⁰고 선포했다.

시진핑은 변증법을 또한 중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우는 수단으로도 운용한다. 2018년 6월 중국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會議, Central Conference on Work Relating to Foreign Affairs)에서 시진핑은 "현재 중국은 근대 이후 가장 좋은 발전시기를 맞고 있다" (當前, 我國處於近代以來最好的發展時期)라고 진단하며 "전략적 자신감을 견지하라" (堅持戰略自信)고 주문했다.⁴¹ 미국과 무역전쟁 한 가운데에 있지만, 중국국제경쟁교류중심 왕웨이(王军) 연구원에 의하면 시진핑의 발언은 "공산당 지도부 차원에서 현재 중국이 중요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기회 기간이라는 판단이 '변하지 않은 것'(沒有改變)"이라고 했다. (신화망. 2018.12.13.).⁴² 시진핑은 또한 같은 날 베이징(北京) 중난

40) 新华社. "习近平：在纪念马克思诞辰200周年大会上的讲话." 2018.05.04. http://www.gov.cn/xinwen/2018-05/04/content_5288061.htm.

41) 新华网. "习近平：努力开创中国特色大国外交新局面." 2018.06.23.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06/23/c_1123025806.htm.

42) 新华网. "为全面建成小康社会收官打下决定性基础——中央政治局会议传递2019年经济工作五大信号." 2018.12.13.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2/13/>

하이(中南海)에서 가진 당외 인사들과의 좌담회에서도 참석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확고히 고난을 극복하고, 도전에 대응한다는 의지와 결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다(인민일보. 2018.12.14.).⁴³⁾

시진핑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 그는 미중 무역전쟁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중국이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자고 독려하는 것 같다. 변증법은 정반합의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의 긍정성이 반의 부정성을 거쳐 합이라는 종합성에 이르는 데 있다. 그러나 진정한 ‘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의 부정적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⁴⁴⁾ 현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 대해 마치 전쟁이 시작될 터이니 허리띠를 졸라 매고 정신력을 무장하라는 주문처럼 들리기도 하다. 결국, 변증법에서 보면 위기는 결국 기회다. 그리고 그것은 ‘합’으로 이어지는 필연적 역사 발전의 과정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전쟁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은 어떤 태세를 갖추어야 할까? 시진핑은 “싸움에 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전쟁 태세를 갖추어야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⁴⁵⁾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시진핑이 ‘변증법적 방책’으로 임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이 시각의 연장선에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충돌을 피해야 할 대상’에서 중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산’으로 전이(轉移) 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 최근 인도와의 국경분쟁,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일본의 센카쿠제도(중국명 釣魚島) 등은 모두 중국의 핵심이

c_1123850409.htm

43) 人民日報. “堅定战胜困难、应对挑战的意志和决心，为保持我国经济持续健康发展作出新的更大贡献。” 2018.12.14.

44) “독일관념론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김석수 (경북대). http://contents.kocw.or.kr/document/region/2011/01/321318_kimsuksu_02.pdf.

45) 신화망 한국어판. “(인물 특집) 시진핑: 신시대의 길잡이.” 2017.11.17. http://kr.xinhuanet.com/2017-11/17/c_136759507_6.htm.

익에 속하는 영역이고 중국의 대국굴기를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과 물리적 충돌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임 후진타오 시기 때는 미중 사이에 하나의 ‘충돌점’ (point of conflict)이 있었고 그것은 대만 문제였다. 하지만 시진핑 시기에는 그것에 더해 ‘남중국해’와 ‘북한,’ 이 두 개의 충돌점이 더해졌다.

V.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전 노정 가능성

미·중은 이데올로기·세계관이 다른 두 문명이다. 무역을 통한 공동 이익 창출은 지금까지 충돌을 막아준 방파제였다. 어떤 면에서 지금 그 안정을 지탱해준 독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무역뿐 아니라 대만·남중국해·티베트·사이버 해킹·인권·북극해·5G·인공지능·북한 등 기술과 안보, 체제 문제로까지 전면전 양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장기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중국 현지 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한 중국 관계자는 이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화’ (globalization without America)라고 이 부분을 영어로 또박 또박 표현했다.⁴⁶⁾ 중국이 고립주의를 택한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중일 3국, 동남아, 유럽으로 나뉜다. 이를 3개 ‘전선(戰線)’으로 삼아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전략이 성공할 것이란 낙관론으로 선회했는데 일본과의 급격한 관계 개선이 계기가 됐다. 2018년 11월 중국 최초 수입박람회 미국 기업들이 불참하자 그 빈자리를 바로 일본 기업들이 꽉꽉 채웠다.⁴⁷⁾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중국 편으로 견인할 수 있고, 대중국 봉쇄에도 공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을 배제한 중국 중심 세계화 전략은 단기적으로 난관에 부딪힐 테지만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중국은 예상한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은 힘들겠지만 살아남아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성격에 대해 한 발 늦은 인식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관세 전쟁’도 아니고 ‘무역 분쟁’도 아니

⁴⁶⁾ 저자 현지 인터뷰.

⁴⁷⁾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연설을 했다. 중국 관방언론에 의하면 2019년 11월에 열리는 제 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도 시진핑이 직접 가서 연설을 하고 전 세계 170여개 국에서 온 해외기업인들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한다.

라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에서 조정이 아직도 미뤄지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미중 갈등이 ‘그나마 무역전쟁이라 다행’이라는 시각이다.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얼핏 들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인식 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일 테다. 무역 갈등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빈번히 있기도 하다. 동맹관계인 한미 사이에서도 있다. 그런데 수교 40주년을 맞는 미중 관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자면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은 판이하게 그 무게감이 다르다. 그것은 그동안 산적한 미중 갈등을 막아주었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과 같다. 이는 미중관계에서 ‘무역’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난 40여 년간 인권문제, 대만 문제, 티벳, 언론 자유, 소수민족 핍박, 종교 억압, 이데올로기 대립 등 미중간에는 만성적인 충돌의 뇌관들이 무수했다. 그러한 대립이 양국관계를 본질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을 막아준 ‘완충제’가 바로 미중 양국의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이었다. 미중 간의 깊은 ‘전략적 불신’을 극복하게 해준 것도 바로 경제적 ‘공동 이익’이었다⁴⁸⁾.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그러한 미중 갈등의 완충 역할을 했던 ‘뚝’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산적했던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다. 즉, ‘무역전쟁’은 미중관계를 지탱해 왔던 버팀목이 무너진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맥락은 왜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공화·민주당의 정당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반중정서가 전반적으로 고조·확산되고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갈수록 미국사회를 반영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미국 내 중국 정부의 예

⁴⁸⁾ 저자 워싱턴 인터뷰. 2019년 10월.

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자학원’ 폐쇄 움직임, 중국 기업인들의 미국 첨단기업 투자나 인수·합병 및 산·학 협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최근 한국에까지 파장을 내고 있는 ‘화웨이 사태’ 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의 모습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2018년 1월만 해도 폼페이오 당시 CIA 수장은 중국을 ‘러시아와 동급으로 미국에 큰 위협’(as big a threat to US as Russia)이라고 표현했다. 거의 1년이 지난 2018년 말 폼페이오는 12월 10일 러시아를 쫓 빼고 중국만 꼬집어 “중국은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China presents the greatest challeng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face)”⁴⁹⁾이라고 명시했다.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2019년 10월 22일 헤리티지재단에서 행사 연설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9년 동안 잠잠했던 일본, 호주, 인도와 미국간의 안보 회담인 ‘쿼드’(Quad)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쿼드가 “중국이 세계에서 적절한 위치만을 유지하도록”(China retains only its proper place in the world)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억제 정책을 펼칠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을 축소시킬 것이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쿼드’가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각종 국가전략보고서와 법안들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2018년 1월의 국방전략보고서(NDS), 2018년 2월에 나온 핵 태세검토보고서(NPR), 2018년 8월에 의회를 통과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2019년 1월 발표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2019년 6월1일 나온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⁴⁹⁾ 발원 동영상. https://www.realclearpolitics.com/video/2018/12/10/pompeo_china_is_the_greatest_threat_us_faces.html.

Strategy)는 모두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미국의 주된 우선 사항임을 적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이름을 명기하고 이 국가에 대한 적대적 관계에 대한 전략과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미국의 전략 관점에서 볼 때 제2차세계대전 후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핵무기를 가진 중국의 부상’ (the rise of China as a nuclear power)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예방 전략에 적절한 정책 투자를 하지 않았다.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을 상대하여 경쟁관계에 있었고 이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소련이 없어지자 당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만한 다른 국가는 없었다. 중국은 여전히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1993~2001)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 유인책을 써서 정치적 개방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폈고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해 주었다. 중국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미중간 통상의 증가가 중국을 더욱 개방으로 이끌고 중국 공산당의 중국 경제에 대한 통제권이 이완되면서 중국 사회가 서서히 민주화되고, 공산당이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 중국 인권 문제도 향상되리라 보았다.⁵⁰⁾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맞아떨어져 가지 않았다”라고 모렐 (Morell)은 회고 한다.⁵¹⁾ 세계은행 (WB) 중국 대표부 대표를 역임한 데이비드 달러 (David Dollar)는 “요즘 워싱턴에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시켜 준 것이 실수였다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고 실토한다.⁵²⁾ 클린턴 행정부

⁵⁰⁾ “Bill Clinton on China.” Issues2000.org. http://www.issues2000.org/celeb/Bill_Clinton_China.htm

⁵¹⁾ “Like many people, we had an assumption that as China got rich, it would get more liberal. That so far has turned out to be not quite right.” Sinica Podcast. June 21, 2019.

⁵²⁾ “It’s common in Washington now to argue that it was a mistake to let China in to the WTO.” The Brookings Cafeteria podcast. June 19, 2019.

당시 美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였던 샬린 바셰프스키(Charlene Barshefsky)는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시켜준 후에 미국은 중국이 규범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⁵³⁾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은 공교롭게도 9.11 테러 사건이 터졌고 이는 ‘이라크 전쟁’ (2003~2011)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관심은 그 후 장기간 중동에 머물렀다. 이 시기에 중국은 미국의 견제없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여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은 이 기간에 그나마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당시 도모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⁵⁴⁾으로 구체화 과정에 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의 거침없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도운 ‘스폰서’가 바로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었다는 데서 미국은 내심 낭패감과 더 큰 좌절을 느끼고 있다. 이는 이제라도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내 강경론자들의 입지를 강화해줌과 동시에 중국과의 어정쩡한 화해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을 확실히 억눌러 중국이 다시는 미국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미국 사회의 ‘집단 의식’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중국의 행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견제’에 있어서 이처럼 미국의 의회, 군부, 대통령, 국무부, 미국 시민들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적은 아마 처음인 것 같다는 워싱턴 싱크탱크 한 인사의 관찰은 유의미하다.⁵⁵⁾ 주목할 것은,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

⁵³⁾ “The United States has missed many opportunities to enforce the WTO agreement against China.” The Brookings Cafeteria podcast. June 19, 2019.

⁵⁴⁾ “Indo-Pacific Strategy.” Department of Defense. 1 June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이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칙적인’ 미국의 지도자와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스트롱맨’ 두 사람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요즘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미중 갈등이 ‘구조적’ 측면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인지에 상관없이 벌어졌을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담당국장을 지낸 라이언 하스(Ryan Hass)도 동의하는 바다. 한편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는 2019년 8월23일 한국의 한 신문에 기고한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이란 칼럼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미국 대신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 보았다.⁵⁶⁾ 일부의 의견이지만 이런 의견 자체가 갈수록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은 주목할 사항일 것이다.

1. 미중 갈등과 한국

미중 관계와 관련, 현재 미국에서는 미중 관계의 ‘이혼’ 후 미중 패권경쟁에 대해서 다음의 네가지 시나리오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첫째, 여전히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시대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타협론이다. 미중이 아무리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세계 차원의 이슈들이 결국 미중을 타협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성향 여부에 따른 미중 관계 전망인데, 시진핑은 결코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이 맨 마지막 사항은 패권 도전국인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에 대한 성향 분석에 대한

⁵⁵⁾ 저자 인터뷰.

⁵⁶⁾ 스테판 해거드. “[글로벌 포커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중앙일보. 2019. 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3559689?cloc=joongang|home|opinion>.

관심을 반영한다. 그만큼 시진핑은 근래 중국 지도자 중에서 독특하다. 이에 미국의 중국 전문가 엘리자베스 이코노미(Elizabeth Economy)는 시진핑 시대의 도래를 중국 현대 역사에 있어 ‘제3의 혁명’(the third revolution)이라 부를 정도다.⁵⁷⁾ 시진핑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해 세계1 등국가가 되는 것이 ‘중국의 역사적 운명’(China’s historic destiny)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미중 간 타협은 지난해진다.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과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미래에 미중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전까지 세계가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극화’(bipolarity)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국력이 중국보다 우세한 상황에서, 그것은 동등한 두개의 수퍼파워의 양립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미국이 우세한 형국의 ‘비대칭 양극화’(asymmetric bipolarity) 세계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직 한 주중미국대사⁵⁸⁾는 그 중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중국의 군비 증강이다. 그는 중국이 근년에 군사비에 쓰는 비용이 ‘자국 방어’ 용을 훨씬 초월한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부쩍 향상된 경제 위상에 힘입어 중국을 다른 국가들의 ‘발전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과거 중국 지도자들과 비교하여 큰 변화이다. 시진핑 본인도 2009년 국가 부주석의 신분으로 남미 순방 중 중국이 ‘발전 모델’을 수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중국 최고지도자가 되자 입장을 바꾼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를 볼 때 만약 미국이 중국을 지금 억제하지 않으면 그럴 기회를 영원히 실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⁵⁷⁾ 첫 번째 혁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의 시대. 두 번째 혁명은 ‘개혁 개방’을 추진한 덩소평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몽’을 표방한 지도자 시진핑의 도래다.

⁵⁸⁾ 필자 미국 현지 인터뷰. 2019년 10월.

반추해볼 때,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성격에 대해 한 발 늦은 인식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관세 전쟁’도 아니고 ‘무역 분쟁’도 아니라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다음으로 구체화된다. 미중갈등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패권국과 부상하는 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만들어내는 보다 구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로는 협력을 촉진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갈등적 경쟁구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⁵⁹⁾ 중국은 자국 경제에 장기적인 고통을 초래하더라도 미국에 ‘단기적 고통’을 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뒤집으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양패구상식 전술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양국간 미래 패권경쟁이라고 볼 때, 미중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은 단기적 과제가 아닐 것이다. 즉 금방 끝날 사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⁶⁰⁾이라고 명시한 것에 미중 갈등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와 관련, 한국은 미중간 힘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진핑 제2차 임기의 서막이 된 2017년 10월에 열린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보고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시대, 이른바 ‘신시대’(新时代)에 진입했다고 선포했다.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중국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하는 즈음에서 여러모로 함의가 담긴 표현이다. 한국이 그런 ‘신시대’의 도전, 특히 미중관계 장기전 노정이 유력화 되가는

⁵⁹⁾ 김상기 (2014). 기로에 선 한반도. 한국정치학회보, 48(5), 229-247, p. 237.

⁶⁰⁾ “China angered at new U.S. defense act, to assess content.” Reuters. 14 August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china-ndaa/china-angered-at-new-u-s-defense-act-to-assess-content-idUSKBN1KZ021>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⁶¹⁾

⁶¹⁾ 미·중 사이 한국의 선택 문제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분열적 담론으로 등장할 수 있다. 필자의 다음 글에서 이 부분만을 따로 다룰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상기. “기रो에 선 한반도.” 한국정치학회보, 48(5), 2014, pp. 229-247.
- 김윤구, “‘총력전’으로 충돌한 미중… 9월 무역협상도 불투명,” 연합뉴스, 2019.08.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4047100083?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beijing&site=major_news01_related.
- 스테판 해거드. “[글로벌 포커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중앙일보. 2019.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3559689?cloc=joongang|home|opinion>.
- 이귀원, “‘中과 단절’ 위협한 트럼프 “절대적 권한, 비상경제권법 있다,” 연합뉴스, 2019.08.25.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5002100072?section=politics/diplomacy&site=major_news01.
- 이재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중관계: 정치경제 구조의 지속과 변화 가능성.” 전략연구, 2014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3판, 2005), p. 266.
- 정인교,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1-02, 2001
-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갈등.” 경향신문. 2019.08.2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52052005&code=990101.
- 하영선·남궁곤 편저,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2007).
- 홍소일. “국제관계 이론과 아시아태평양.” 전략연구, 2004.
-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Summer, 1987), pp. 335-370.
- Andrew F. Krepinevich and Robert Martinage, *Dissuasion Strategy*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 Assessment, 2008).
- Ana Swanson, “As Trump Escalates Trade War, U.S. and China Move Further Apart With No End in Sight,” *New York Times*, 1 September 2019, <https://www.nytimes.com/2019/09/01/world/asia/trump-trade-war-china.html>.
- Ashley Tellis. “The Tea Leaves Podcast.” June 17, 2019. <https://podcasts.apple.com/us/podcast/ashley-tellis/id1355207045?i=1000441738040>.
- Barker, Chris (2005).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ISBN 978-0-7619-4156-9,
- David Shinn and Joshua Eisenman, Responding to China in Africa (Washington, D.C: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June 2008).
- Edward Wong and Andrew C. Revkin, “Experts in U.S. and China See a Chance for Cooperation Against Climate Change,” *The New York Times* (4 February 2009).
- Gerald. F. Seib, “Pence Uploaded on China; Here’s Why That’s Important,” *The Wall Street Journal*, 2018.10.08. <https://www.wsj.com/articles/the-deeper-meaning-of-pences-china-broadside-1539010010>.
- Hillary Clinton, “Closing Remarks for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28 July 2009), at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july/126599.htm>.
- Hillary Rodham Clinton, “Nomination Hearing to be Secretary of State,” Statement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13 January 2009); and Robert M. Gates, Testimony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15 April 2008).
- Hillary Clinton and Timothy Geithner, “A New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with China,” *The Wall Street Journal*

- (27 July 2009).
- Joshua Kurlantzick, *Charm Offens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Orville Schell and Susan L. Shirk. "Course Correction: Toward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China Policy." *Asia Society*. February 2019.
- Philip P. Pan, "Civil Unrest Challenges China's Party Leadership," *The Washington Post* (4 November 2004).
- Ralph A. Cossa, "Condoleezza Rice's 'Unfortunate' Decision," *PacNet*, No. 30 (22 July 2005).
- Ralph A. Cossa, Brad Glosserman et al.,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Region: Security Strategy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4 February 2009).
- Robert M. Gates, "A Balanced Strategy,"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9).
- Robert O. Keohane. "Realism, Neorealism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Roxanne Lynn Doty. "Aporia:: A Critical Exploration of the Agent-Structure Problematiqu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97. Volume: 3 issue: 3, page(s): 365-392
- "Text of Chinese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Proposal on 11th Five Year Program," *Xinhua* (18 October 2005).
-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US-China Trade Statistics and China's World Trade Statistics," at <http://www.uschina.org/statistics/tradetable.html>.
- "The U.S. is stopping trade talks with China," Voice of America, 2018.10.25. <https://www.vox.com/2018/10/25/18022518/>

usa-china-trade-war-trump-xi-talks-g20.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March 2006), at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sc/nss/2006/>.

“Toward a Liberal Realist Foreign Policy,” *Harvard Magazine* (March-April 2008); and Thomas J. Christensen,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a Monster? The Rise of China and U.S. Policy toward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Summer 2006).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9.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The Hudson Institute. 2018.10.04. <https://www.hudson.org/events/1610-vice-president-mike-pence-s-remarks-on-the-administration-s-policy-towards-china102018>

Yan Xuetong, “The Instability of China-US Relation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 2010, pp. 263-292

陈积敏，中共中央党校国际战略研究所助理研究员(北京 100091)。

金融界。“中央政治局会议：要辩证看待国际环境和国内条件变化。” 2018.12.13. <https://finance.jrj.com.cn/2018/12/13164726735477.shtml>.

李鹏：《从“战略竞争者”到“利益相关者”：美国对华战略定位转变与台湾问题》，《台湾研究集刊》，2006 年第1期，第2页。

國務院，“國務院發布〈中國製造2025〉全文” 2015.05.08.

人民日报。《胡锦涛奥巴马共同会见记者》，2009年 11月 18日，第2版；《胡锦涛同美国总统奥巴马。

人民日报.“坚决反制奉陪到底”, 2019年 08月16 日,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8/16/c_1124882697.htm.

人民日报.“坚定战胜困难、应对挑战的意志和决心, 为保持我国经济持续健康发展作出新的更大贡献.” 2018.12.14.

人民日报.《习近平会见奥巴马》(海外版) 2013年 9月 7日, 第1版。

外交部网站.《习近平同美国总统奥巴马共同会见记者》, 2013 年 6 月 8 日。

外交部网站, “2019年8月21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2019.08.21.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690592.shtml

王缉思.《“遏制”还是“交往”? 评冷战后美国对华政策》,《国际问题研究》, 1996年 第1期, 第2页。

新华网.《胡锦涛同美国总统奥巴马通电话》, 2009年 1月 31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09-01/31/content_10738671.htm。

新华网.《希拉里访华: 经济先于人权 合作重于分歧》, 2009年 2月 23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09-02/23/content_10875221.htm。

新华网.《中美 联合 声明》, 2011年 1月 20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11-01/20/c_121001428.htm。

中评网.《奥巴马: 习近平有魄力、有活力》, 2013 年 6月 19日, <http://www.crntt.com/doc/1025/8/8/4/102588419.html?coluid=0&kindid=0&docid=102588419>。